碩士學位論文

한국 입술화장(化粧)문화에 관한 通時的 고찰

2003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申 世 榮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昌九

한국 입술화장(化粧)문화에 관한 通時的 고찰

A Diachronic Study on Lip Make-up of Korea

2002年 11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申 世 榮

碩士學位論文
指導敎授 李昌九

한국 입술화장(化粧)문화에 관한 通時的 고찰

A Diachronic Study on Lip Make-up of Korea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1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申 世 榮

申世榮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11月

審査委員長_____ ㊞

審 査 委 員_____ ㊞

審 査 委 員 이 창 구

국문초록

우리의 언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인간의 미의식의 원류는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행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미지의 형성은 사회의 흐름이나 정서의 변동, 문화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화장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미적 가치를 갖지만, 학문적으로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가치체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서 그에 반영된 정신적 기반과 미의식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장의 변천과정을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도구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인의 조건 중 삼홍(三紅)이라 하여 볼과 입술 및 손톱이 붉어야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연지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

화장을 화류계의 여자나 하며 야한 화장은 정숙한 여자가 할 짓이 못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 지배당했던 옛 여인네들도 입술연지만은 애용했다고 한다. 그것은 입술색이 푸른 여자는 음녀라는 이유에서 였다. 본래 연지는 볼이나 이마에 칠한 것이지 현재의 립스틱처럼 입술에 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입술이 창백하면 시집을 못 간다는 관념 때문에 옛 처녀들은 은밀히 연지를 구해 입술에 칠하는 습속이 퍼지게 되었다. 특히 연지의 붉은색은 잡귀가 꺼린다고 하여 소녀들의 이마와 입술, 뺨에 널리 이용되기도 했다.

멋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소녀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 립스틱이다. 나이가 들면 화운데이션이나 아이섀도우를 주로 쓰던 여성이 더 늙게되어 마지막까지도 사용하는 화장품 역시 립스틱이다. 그러므로 립스틱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최후까지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장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화장문화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고 널리 사용되는 입술화장에 국한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술화장의 역사 와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나아가 적절한 입술화장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술화장문화의 변화를 시대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입술화장의 정확한 이해와 다양화된 입술화장품을 정리하고 올바른 입술화장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입술화장의 통시적 고찰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술화장의 시작은 고대문헌과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였으며 이 시기에는 구체적인 입술화장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붉은 연지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후 각 시대별로 미인의 기준이 있어 그에 따른 입술화장의 형태와 색상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여염집 여성들의 엷은 화장과 기생중심의 분대화장으로 보아 화장에 있어서 신분별로 이원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화기 이후 수입의 개방화로 많은 화장품과 화장법이 제시되었다. 근대에는 다양한 색상과 입술형태의 변화가 두드러 졌으며 최근에는 특별한 색상과 입술형태가 중요시되기 보다는 자신의 본래 입술에서 단점은 수정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개개인의개성에 맞게 화장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현재에는 미(美)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화장품의 대량생산과 다양한 수입브랜드의 유입으로 입술화장에 관련된 제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품의 형태도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정확한 정보와 활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앞으로 세분화된 입술화장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자기자신의 개성연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目 次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5

Ⅱ. 입술화장문화의 개념 및 정의 6

Ⅲ. 고대 한국 입술화장문화의 시대별 특성 9

1. 삼국시대 9

1) 고구려 9

2) 백제 11

3) 신라 12

2. 통일신라시대 14

3. 고려시대 14

4. 조선시대 17

Ⅳ. 현대 한국 입술화장문화의 시대별 특성 21

1. 1900-1940년대 21

2. 1950년대 25

3. 1960년대 27

4. 1970년대 31

5. 1980년대 ····· 35
6. 1990년대 ····· 40
7. 2000년대 ····· 44

V.입술화장의 방법 및 분류 ····· 51
1. 립스틱 ····· 51
1) 립스틱의 명칭 ····· 51
2) 립스틱의 분류 ····· 52
3) 제품의 분류 ····· 53
4) 립스틱의 색상 ····· 54
5) 립스틱의 선택조건 ····· 57
2. 입술화장 방법 ····· 59
3. 입술의 형태에 따른 이미지 화장법 ····· 61
1) 입술선이 주는 이미지 ····· 61
2) 입술형태에 따른 화장법 ····· 62

VI. 결론 ····· 64

참고문헌

Abstract

表 目 次

표 1. 연대별 입술화장의 변화 ····· 48
표 2. 립스틱의 명칭 ····· 50
표 3. 피부색에 어울리는 입술 색상 ····· 54
표 4. 의상색과 어울리는 입술 색상 ····· 55
표 5. 입술화장의 final checkpoint ····· 59

그 림 目 次

그림 1. 입술의 명칭 ····· 8
그림 2. 수산리 고분 벽화 ····· 10
그림 3. 고구려 쌍영총 벽화 ····· 10
그림 4. 수월관음도 ····· 15
그림 5. 고려시대 하연부인상 ····· 15
그림 6. 조선시대 미인도(신윤복) ····· 19
그림 7. 1920년대 입술모양 ····· 22
그림 8. 1930년대 입술모양 ····· 23
그림 9. 그레타가르보 ····· 23
그림 10. 마늘렌느 디트리히 ····· 23
그림 11. 1940년대 입술모양 ····· 24
그림 12. 1950년대 입술모양 ····· 26
그림 13. 1955년 12월 '여원'표지 ····· 26
그림 14. 트위기 ····· 27
그림 15. 1960년 '여원'표지 ····· 27
그림 16. 1960년대 입술모양 ····· 28
그림 17. 1964년 태평양 광고 ····· 28
그림 18. 1964년 태평양 브루버드 광고 ····· 28
그림 19. 1970년대 입술모양 ····· 31
그림 20. 1970년 한국화장품(쥬단학) 광고 ····· 32
그림 21. 1972년 태평양화학 광고 ····· 32

그림 22. 1978년 태평양화학 광고 ····· 32
그림 23. 1979년 미보라 광고 ····· 32
그림 24. 1980년대 입술모양 ····· 36
그림 25. 1980년 태평양화학 광고 ····· 36
그림 26. 1984년 아모레 나그랑 광고 ····· 36
그림 27. 1983년 태평양화학 광고 ····· 37
그림 28. 1983년 태평양화학 광고 ····· 37
그림 29. 1981년 3월 24일 조선일보 ····· 39
그림 30. 1990년대 입술모양 ····· 42
그림 31. 1993년 9월20일 중앙일보 ····· 42
그림 32. 1997년 2월10일 중앙일보 ····· 42
그림 33. 1990년 광고 ····· 43
그림 34. 1993년 태평양화학 광고 ····· 43
그림 35. 1997년 태평양화학 광고 ····· 43
그림 36. 2000년대 입술모양 ····· 45
그림 37. 2000년 태평양 라네즈 광고 ····· 46
그림 38. 2000년 태평양 라네즈 광고 ····· 46
그림 39. 2000년 7월 드봉 LacVert 화장품 광고 ····· 47
그림 40. 2001년 한국화장품 광고 ····· 47
그림 41. 2002년 에뛰드 광고(태평양) ····· 47
그림 42. 2002년 에뛰드 광고 (태평양) ····· 47
그림 43. mattes ····· 51
그림 44. cremes ····· 51
그림 45. glosses ····· 51

그림 46. sheers and stains ····· 51
그림 47. long-lasting ····· 52
그림 48. lip liner ····· 52
그림 49. 입술 그리는 순서 ····· 59
그림 50. 직선형 입술선 ····· 60
그림 51. 인커브형 입술선 ····· 60
그림 52. 아웃커브형 입술선 ····· 61
그림 53. 두꺼운 입술 ····· 61
그림 54. 얇은 입술 ····· 61
그림 55. 작은 입술 ····· 62
그림 56. 처진 입술 ····· 62
그림 57. 주름이 많은 입술 ····· 63

I. 序 論

1. 연구의 목적

우리의 언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인간의 미의식의 원류는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행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 미의 표현 방법은 수식, 복식, 장신구, 화장 등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로 의식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이미지의 형성은 사회의 흐름이나 정서의 변동, 문화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1)]

문화의 척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농경사회의 정착으로 의식주의 안정된 일상생활의 여유에 편승하여 인간 본능의 자연적인 욕구에 의해 단순한 것에서 진일보 하여 새로운 욕구 충족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의식(美意識)이 양산되었다.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는 식욕, 성욕과 아울러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라로 태고적부터 인간의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일부의 약점이나 추한 부분을 수정 혹은 위장하고자 노력해왔다. [2)]

인간이 언제부터 화장을 시작했는지를 밝히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단지 오랜 옛날 의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신체를 장식하는 것이 유일한 장식수단이었고 인간의 아름다워지려는 미적욕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한다.[3)]

화장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미적 가치를 갖지만, 학문적으로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가치체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서 그에 반영된

---

1)김춘득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p123
2)전완길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1999 p.13
3)김광숙 외 The make up 청구문화사 2002 p.12

정신적 기반과 미의식을 유추해 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화장의 기원은 각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고 각 민족마다 말과 문자가 다르며 의복과 풍속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단정지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장의 공통적인 기원은 첫째, 미(美)적인 성적본능(性的本能)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둘째, 주술적(呪術的), 종교적(宗教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별(性別), 사회적 지위, 소속집단을 표시하기 위함이다.[4)]

따라서 화장의 변천과정을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도구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장의 역사는 고대 단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단군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사용된 쑥과 마늘은 미백과 피부미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 햇빛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당시의 지배층이 흰색 또는 흰 피부색을 선호했음을 보여준다.[5)]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화장문화는 단군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입술 화장문화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물들에 의하면 삼국시대의 고구려 쌍영총 벽화나 수산리 고분벽화에 뺨과 입술이 연지로 단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로 추정되고 있다.

'칠보단장(七寶丹粧)에 연지, 곤지 찍고 시집가는 우리언니....'라는 말은 우리네 옛 여인들이 시집가려고 초례청에 나가기 위해 화장하는 장술(粧術)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 조선시대 당시 여염집 여자들은 거의

---

4)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답게 1997 p.46
5)김광숙 전게서 p.22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다. 개화의 물결이 넘친 1920년 이나 30년대까지만 해도 유두분면(油頭粉面)이라하면 화류계의 여자나 첩살이 여인을 일컫는 말로 통했을 정도이였다.[6]화장을 화류계의 여자나 하며 야한 화장은 정숙한 여자가 할 짓이 못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 지배당했던 옛 여인네들도 입술연지만은 애용했다고 한다. 그것은 입술색이 푸른 여자는 음녀라는 이유에서 였다. 본래 연지는 볼이나 이마에 칠한 것이지 현재의 립스틱처럼 입술에 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입술이 창백하면 시집을 못 간다는 관념 때문에 옛 처녀들은 은밀히 연지를 구해 입술에 칠하는 습속이 퍼지게 되었다. 특히 연지의 붉은색은 잡귀가 꺼린다고 하여 소녀들의 이마와 입술, 뺨에 널리 이용되기도 했다.[7]

향장품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은 연지로 알려진다. 연지는 홍화(紅花)의 화즙에서 붉은 즙을 분리해 만든 것으로 여인들의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긴 향장품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인의 조건 중 삼홍(三紅)이라 하여 볼과 입술 및 손톱이 붉어야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연지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

연지의 전파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서남아시아에서 생겨난 연지풍속이 중국의 서북지방과 몽골고원지대를 거쳐 고구려에 들어온 후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뜻이 덧붙여진 것'[8]이라는 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연지는 여러 지역에서 행해진 관계로 명칭이 다양하다.

이렇듯 여인들의 화장 문화는 각 시대마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나 종교적 이념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입술화장 문화를 보면 시대에따라 연지(현재는 립스틱이라 불림)의 원료, 입술화장의 형

---

6) 김덕록 전게서 p46
7) 류은주 한국 고대 피부관리 및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권1호 p.12
8) 송민정 우리나라전통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 p.35

태와 색상의 변화가 가장 많이 두드러진다.

현대에는 붉은 입술색이 주를 이룬 고대와는 달리 다양한 색상의 입술색이 나타났으며 연지의 원료나 화장법 등이 시대상황과 유행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게 되어 현재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입술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다.

멋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소녀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 립스틱이다. 나이가 들면 화운데이션이나 아이섀도우를 쓰던 여성이 더 늙어서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화장품도 역시 립스틱이다. 그러므로 립스틱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최후까지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장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입술 화장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드물다.

화장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는 앞서서 많이 시행되어왔다. 본 논문은 한국화장문화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고 널리 사용된 입술화장에 국한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입술화장의 역사 와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나아가 적절한 입술화장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화장문화 발달사 중에서도 입술화장문화의 변천과정을 연구 하였으며 시대적 범주로는 고대 시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이다.

입술화장문화의 변화를 시대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입술화장의 정확한 이해와 다양화된 입술화장품을 정리하고 올바른 입술화장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론적(理論的)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화장문화의 문헌을 연구 고찰하였다. 고대의 화장문화는 화장문화사에 관한 문헌적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근대의 화장문화는 각종 패션지, 화장품회사 간행물, 한국미용학회지, 각종 화장품광고 전단지, 문헌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II. 입술화장문화의 개념 및 정의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코는 그 사람의 지능, 입은 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입술의 색깔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따지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여성의 입술을 성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입술은 움직임이 가장 많은 곳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와 각도를 생각해서 화장을 완성하면서 입술 윤곽을 살려주고 입술의 색감을 주고 얼굴의 색감을 한층 더 매력있게 해주며 얼굴전체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그래서인지 미에 대한 기준이 변하는 만큼 입과 입술에 대한 관심과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 조선시대만 해도 앵두같이 작은 입술을 아름답게 여겼는데 현대는 그 기준이 크고 도톰한 입술로 바뀌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달라진 여성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의 앵두 같이 작고 야무진 입술에서 도톰하고 큰 입술로 미의 기준이 바뀐 것은 얌전하고 다소곳한 여성보다 솔직하고 생기 있는 여성상을 현대에서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9]

입술화장이라는 것은 화장품을 사용하여 입술에 색감을 주어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며 외부의 자극이나 자외선 등으로부터 입술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다.[10] 립스틱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입술 화장품이며 다양한 컬러와 촉촉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화장에서도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 그러나 입술화장은 여전히 얼굴에서도 가장 작은 부분을 칠하여 가장 뚜렷한 효과를 낸다. 외국화장품계에선 인구증가가 바로 립스틱의 판매신장과 연관이 될 정도로 수요의

9)양두병 미용성형, 어디를 어떻게 명상 1998 p.112
10)김광숙 전게서 p.112

폭발 상태를 보이고 있다.[11]

입술화장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고 많은 여성들에 의해 애용되어온 아이템이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붉은 색을 의미하는 루즈(Rouge)로 불리워지다가 요즘은 일반적으로 '립스틱'이라고 지칭된다.[12]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까지도 연지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입술연지, 볼연지로 구별하였다.

입술화장은 기초화장에 비해 더 많이 유행을 탄다.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원칙은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입술피부는 그 각질층이 다른 피부에 비해 얇은 것이 특징이며 땀샘이 없으나 표피 안쪽에 침샘이 있어서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한다. 기름샘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입술에는 거의 유분이 없다. 따라서 춥거나 건조한 조건에서는 입술이 마르고 트게 된다.[13] 립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라놀린과 밀랍성분들의 유분으로 인해 입술의 건조함을 막아준다.[14]

그리고 립 컬러는 입술에 바르는 것이므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안전한 원료의 선택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주름이 생기기 쉬운 입가에 자극이 없어야 하고 불쾌한 맛이나 냄새가 없어야 한다.

---

11)김명자 화장품의 세계 정음사 1985 p.195
12)송민정 전게논문 p.34
13)김명자 상게서 p.195
14)강경화 현대메이크업총론 APC 2000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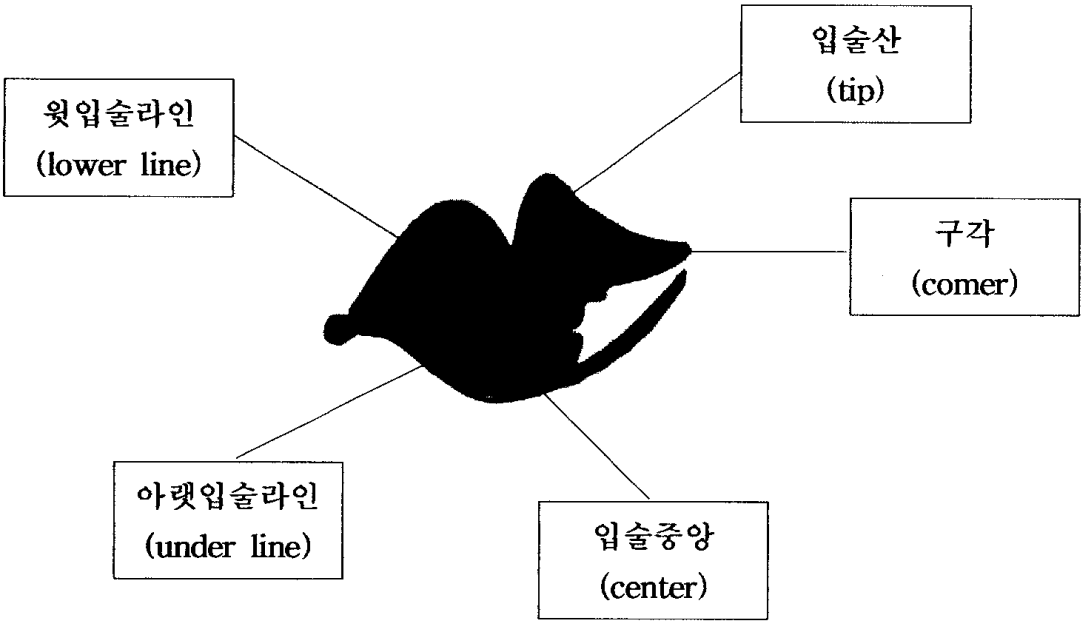


그림 1. 입술의 명칭

이상적인 입술형태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1:1.5 이며 입술산의 위치는 양 콧구멍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으로 내린 선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입술의 양 구각은 눈동자 중앙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보다 조금 안쪽에 위치한다.[15]

15) 배형자 뷰티메이크업의 기초와 응용 청구문화사 2001 p.85

Ⅲ. 고대 한국 입술화장문화의 시대별 특성

1. 삼국시대

이시기는 상고시대(上古時代)의 화장 문화를 기반으로 외부로부터 유입한 한문화(漢文化)를 효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화장 문화를 융화 발전시킨 시기라고 볼 수 있다.[16]

1) 고구려

고구려는 왕족과 귀족들의 지배체제인 계층으로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하였다. 일반백성은 대체로 자영농민이 많았다. 개인의 능력보다 친족의 사회적 지위가 중시된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도였다.[17]

삼국 중 중국과 지역적으로 가장 인접한 고구려는 신라나 백제에 비해 화장 문화의 유입이 빨랐다. 구하사(久下司)의 [화장(化粧)]에 '연지가 일본에 들어온 것은 추고천황(推古天皇)18년(610) 가을 9월로 고구려의 담징이 그 종자를 가지고 왔다' [18]고 한 기록으로 고구려에서는 일본에 연지를 전파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고분으로 보이는 쌍영총 벽화의 남녀가 입술과 볼을 붉게 화장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나 평안도 수산리 고분 벽화의 귀부인상에서는 여인이 머리에 관을 쓰고 뺨과 입술에 연지화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고구려는 5-6세기경에 연지화장을 했으리라고 추측된다.[19]

---

16) 송민정 전게논문 p.14
17) 김춘득 상게서 p.141
18) 久下司 화장 일본법정대학출판부 1970 p.245
19) 김희숙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p.35

그림 2. 수산리 고분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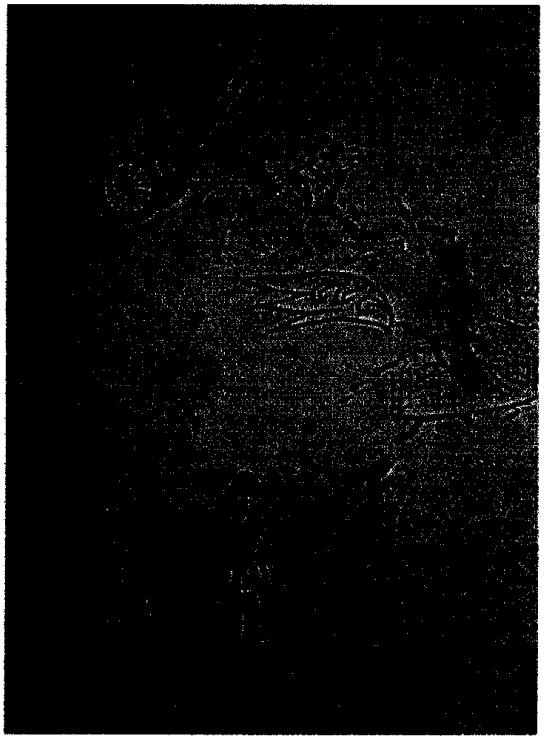


그림 3. 고구려 쌍영총 벽화

쌍영총 벽화에는 귀족부인과 여관 및 시녀가 그려져 있는데 그 결발 분식 의상을 보면 머리에 관을 쓰고 옷깃이 붉고 치마에 붉은 줄이 섞여 있으며 뺨에는 연지가 찍혀 있다.

단편적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무녀와 악공이 이마에 연지화장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이는 고구려인들이 연지를 입술과 뺨 이외에 이마에도 발랐으며 고구려 여인들은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고 눈썹화장에도 신경을 써서 짧고 뭉툭하게 그렸다고 보인다. 또한 연지화장이 직업을 구별 짓는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 고구려의 연지는 신라와 달리 광물성인 주사로 만들었는데 이들의 연지는 고품질이었으리라고 추측된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연단술이 중국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20]

20) 김춘득 전게서 p.143

2) 백제

백제사회는 북방에서 내려온 유이민과 한강유역의 토착민 집단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철기문화를 경험한 유이민이 북방 문화를 접한 경험이 부족한 토착민을 지배하였다.

백제는 중국문화의 수입과 전달에 있어서 큰 활약을 하면서 귀족적 성격이 강한 화려한 장신구들을 제작하였다. 미의식이 귀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지방의 토착문화는 충분히 육성시키지 못하였다.[21]

지리적 여건으로 고구려, 신라보다는 다소 늦었으나, 일본의 옛 문헌[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화장할 줄도 모르고 만들 줄 몰랐던 일본인들이 백제로부터 화장품의 제조기술과 화장기술을 익혀 비로소 화장을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백제의 화장기술과 화장품의 제조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백제 사람들이 사용한 화장품의 종류라든지 화장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지극히 한정된 내용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22]

백제인의 화장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기록은 거의 없으나 중국 문헌에 의하면 백제인의 화장 경향은 시분무주(施紛無朱:분은 바르되 연지를 바르지 않음)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중국여인의 화장과 비교한 것으로 백제인은 엷고 은은한 화장을 좋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3]

백제의 경우 구체적인 기록이나 출토품이 적어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메이크업의 정도를 제대로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삼국 중 가장 앞선 문화적 수준을 잘 자랑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

21) 김춘득 전게서 p.144
22) 전완길 전게서 p.42
23) 전완길 전게서 p.42

미루어 볼 때 백제인들도 나름대로 화장기술이 발달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의 [화한삼재도회]라는 도감에 일본이 백제로부터 화장기술과 화장품 제조기술을 배워간 다음에야 비로소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백제의 화장기술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선진적이었음을 추측케 한다.[24]

3) 신라

신라는 불교의 전래와 불교신봉에 의해 화장과 화장품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김유신의 동생 문희가 엷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간직했으며 생활수준 역시 고도화 되었으므로 통일이전의 엷은 화장 경향이 통일 이후 다소 화려해진 것으로 여겨진다.[25]

신라시대는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화장에 관한 기록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신라는 박혁거세와 알영의 일사가 시사하듯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의 사상이 국민정신의 바탕이 되어 남녀가 모두 깨끗한 몸과 단정한 옷차림을 추구하였다.

신라의 화장품으로는 백분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는 안면을 희게 보이게 하며 잔주름과 흠을 위장하기 사용되었다. 백색피부를 선호하는 신라인들에게 널리 사용된 화장품이다.

백분에 버금갈 만큼 대중화한 화장품은 연지이다. 화장의 목적은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게 하고 추한 부분을 감추거나 위장하기 위해서인데 한국인의 고정관념으로는 가장 젊고 건강한 연령은 15-16세 이

24) 김덕록 전게서 p.48
25) 김희숙 전게서 p.42

며 이 무렵의 여성은 입술은 앵두빛이고 뺨은 도화빛 이라고 한다. 따라서 젊음과 건강이 절정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술과 이마 볼에 붉은 연지를 발랐다. 입술과 볼을 치장한 이 연지는 홍화로 만들었다.[26]

연지의 연료인 홍화는 삼국시대 산과 들에서 핀 꽃으로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다. 홍화는 여름철에 활짝 피는 1년생 화초로서 모양이 없고 가시가 있어 가정용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주로 야생하는 꽃으로 매년 4월경 파종되어 1미터쯤 자란 후 6월경이면 꽃망울이 맺고 7월중에 개화한다. 옛사람들은 이같이 채집한 홍화를 돌이나 나무 절구로 빻아서 꽃물을 제거했다. 꽃물이 빠진 홍화를 다시 베로 짠 다음에 이를 그늘진 곳에서 천천히 말린다. 말린 덩어리를 손으로 가루를 만든 다음 이 가루에 엷게 물을 또 뿌리고 이를 다시 말린다. 이 같은 과정을 몇 번씩 거친 후에 이 가루를 체에 쳐서 고운 가루를 얻어낸다. 고운가루를 햇볕에 다시 말리면 그로부터 완전한 연지의 원료가 되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가루를 환약(丸藥)처럼 말려서 장 속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기름에 개어 볼과 입술에 바른 것이다. 그런데 홍화는 채집이 곤란하고 이같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연지가 생산되는 까닭에 물건이 귀하고 값도 비싸서 양반집 상류 가정이나 궁궐 안에서는 모르지만 상민들은 흔히 쓸 수가 없었다. 연지가 대량 생산되고 서민층에까지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대중화되기는 조선 중엽부터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하겠다.[27]

---

26) 김춘득 전게서 p.140
27) 김덕록 전게서 pp.46

2. 통일신라시대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새로 확대된 사회 경제기반 위에 각기 개성을 가지면서 발전되어온 고구려, 백제의 문화를 융합하고 종래 신라문화의 폭을 넓히면서 민족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28]

신라의 삼국통일(668)을 전후로 화장과 화장품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실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문무왕 6년(666)에 [부녀의 모든 복장을 당(唐)의 것과 동일하게 하라]는 고지가 내려진 것으로 중국 여인의 짙은 색조화장도 함께 들어와 통일 신라의 화장이 다소 화려해 졌다고 볼 수 있다.[29]

통일이후에는 정국이 안정되고 문물이 융성해져 국민생활이 윤택해졌으므로 화장에도 영향을 미쳐 다소 사치해졌을 것이다.

여성들은 동백이나 아주까리 기름을 짜서 머리를 치장하고 백분으로 얼굴을 희게 하였으며 이마와 뺨, 입술에 연지를 빨갛게 발랐다. 또한 신분에 관계없이 향낭을 차고 귓불을 뚫어 귀걸이를 달았으며 장도를 지녔다고 한다.[30]

현재 출토되고 있는 신라의 화려한 장신구 들이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지고 사용된 것들이므로 화장이 이러한 경제적 풍요, 장신구 제조기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고려시대

고려는 통일신라의 정치제도와 문화전통을 계승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국교로 계속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화장문화 또한 통일신라의 발달

---

28) 김춘득 전게서 p.147
29) 김희숙 전게서 p.50
30) 김덕록 전게서 p.52

된 문화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한 고려 중기에는 대외무역이 발달하였고 풍요로운 생활로 난숙한 문화의 경지를 누렸으며 12세기 무렵에는 사치풍조가 만연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었다.[31] 고려시대는 국교(國敎)로서 불교를 장려했기 때문에 많은 불교행사가 치러졌으며 많은 불화가 그려졌다.

그림 4. 수월관음도

그림 5. 고려시대 하연부인상

이 시기의 화장문화를 불화로 엿볼 수 있는데, 고려시대 대표적인 불화인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의 일부를 보면 관음상을 향해 공양물을 가지고 가는 여신도들이 있다. 이 여신도들은 흰 피부색을 하고 있으며 눈썹을 가늘고 길게 그렸으며 입술을 붉게 했다.

한편 국초부터 중국의 기녀제도를 본받아 교방을 두는 등 기녀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외형상 사치해 졌고 내면으로는 탐미주의의 경향이 농후해졌다.[32]

서긍의 [고려도경]에서 '부인들이 몸치장에 있어 얼굴에 바르는 것을

31) 강만길 외 한국사 한길사 1994 p.184
32) 송민정 전게논문 p.18

좋아하지 않아 분(粉)만 바르고 연지를 쓰지 않았으며 버들잎 같은 눈썹을 그렸다'고 나타나 있다. 바로 전대까지 크게 유행했던 연지를 바르는 풍속이 고려에 와서는 퇴색된 경향이 있다. 또한 [출가법팔계제]라는 책에서는 '신체나 머리카락, 옷 따위에 향료를 뿌리거나 갓 가지 보석 장신구를 패용하고 여러 가지 화장품을 겹겹이 바른 신자들은 절에 출입을 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여인들의 치장이 신분에 따라 달랐음을 보여준다.

고려의 여인들은 소매가 넓은 비단옷에 머리를 틀어 올리고 눈썹은 가늘게 그리고 엷은 화장을 하고 나들이 때는 향낭을 차고 다녔다. 고려 초기에 태조의 지시로 당의 기녀(妓女)제도를 모방하여 교방을 절지하였는데 기생들은 머릿기름이 반지르르하고 분을 두껍게 바르며 눈썹은 가늘게 반달눈썹을 그리고 뺨에는 연지를 바르도록 교육받았는데 이러한 화장은 기생의 상징적인 표상으로 여겨졌다.[33] 이렇듯 기생중심의 화장을 분대화장이라 했으며 처음으로 신분별 화장기술이 자리 잡았다. 즉 여염집 규수와 부인들은 평상시에 화장을 하지 않고 연회와 나들이 할 때에만 화장을 함으로써 애써 직업여성으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분대화장을 기피했기 때문에 분대화장은 더욱 기생의 상징이 되었다.[34]

이와 같은 결과로 기생중심의 짙은 화장기술인 분대(粉黛)화장이 성행하였고, 한편에서는 여염집 여성을 중심으로 엷은 화장이 유행하여 화장기술이 점차 이원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생들의 이러한 분대화장은 일반 여성들로 하여금 화장에 대한 기피현상과 경멸감을 낳게 하였으나 화장의 보급과 화장품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 말쯤 되어서는 [성호사설]에서는 '후세 부인들은 모두 얼굴에는 붉은 연지를 찍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낀다'라고 하여 기녀뿐만

33) 김춘득 전게서 p152
34) 김춘득 전게서 p.153

아니라 부녀자까지도 널리 연지를 바르고 있음을 한심스러워 했다. 즉 연지는 단주(丹注)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인데 후에는 화장할 때마다 연지를 바르게 되었다.[35]

"연지(燕支)란 연지(臙脂)인데 기름으로써 부인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까닭이다."라고 한 [성호사설]의 '연지조(臙脂條)'의 기록으로 연지가 피부연화제의 역할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운지방의 여성일수록 추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지를 발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4.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문화배경과 남성 우월적인 사회풍조,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의 오랜 전쟁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에 비해 화장의 경향이 소박해졌다.[36]

고려 말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이민족의 잦은 침략으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이 대두되었고, 이들은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하고 토지개혁을 기반으로 새 왕조를 창건하였다. 조선왕조의 개혁정치로 개인의 능력이 존중되었으며 정치제도와 사회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되었다.[37]

내외사상의 팽배로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즉 부덕이 강조되었으며 유학적 도덕관념과 남성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당시의 남성들은 부인들에게 점잖고 운치 있는 용모를 종용하였고 여성들은 그것을 여성미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표면적인 얼굴 화장이 위축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화장문화 발달에 측면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38]

---

35) 이경복(1986) 고려시대 기녀연구 민족문화문고간행사 1986 pp.60
36) 전선정 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p.299
37) 김춘득 전게서 p.159

조선시대에는 유교윤리를 크게 장려한 결과 여성의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즉 부덕이 강조되어 화장이 천한행위로 까지 인식되었다. 조선시대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궁녀나 기생 등 직업여성과 여염집 여인들 간의 화장법이 크게 달랐다.

여염집 여인들은 평상시에는 화장을 하지 않았으나 손님을 맞을 때나 나들이 할 때는 반드시 화장을 했다. 이때에도 직업여성으로 오인 받지 않기 위해서 분대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분대화장은 더욱 기생의 상징이 되었다.

얼굴에 눈썹을 그리고 연지를 칠하고 분을 바르되 본래의 생김새를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였으며 화장한 모습이 화장하기 전보다 확연하게 달라 보이면 야용이라 하여 경멸하였다고 한다. 39)

따라서 조선시대의 화장문화는 여염집 화장문화보다 기녀나 궁녀 같은 특수직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결혼, 외출의 의식행위로 개념이 바뀌어 갔다.

정철의 시조에 '내양자 남만 못한 중 나도 잠간 알건마는 / 연지도 바려있고 분대도 아니미네 / 이러고 괴실가 뜯은 전혀 아니 먹노라'40)고 했는데 그 당시 화장에 연지의 사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이원화된 여성관이 있었는데 아내와 며느리로는 건강하고 성격이 원만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골격과 인상이 유자 후덕한 여성 즉 골격은 풍만하고 건강한 편이며 머리카락은 검고 숯이 많으며 표정은 부드럽고 인중은 긴 편이고 입술색은 붉은 여성을 으뜸으로 여겼고, 소실이나 기생으로는 옥같이 흰 살결 초승달같이 가는 눈썹, 삼단같이 치렁치렁한 숱 많은 머리, 복숭아 빛 뺨, 앵두같은 입술, 세류같이 가는 허

38) 송민정 전게논문 p.20
39) 김춘득 전게서 p.160
40) 정병욱 時調文學事典 신구문화사 1966 p.109

리, 그리고 은쟁반에 옥구슬 굴리듯 낭낭한 목소리의 여인을 최고로 쳤다.

이런 전통 미인의 모습은 한국회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초상으로 평가되는 조선 후기 화가 신윤복의 '미인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정실부인으로서의 여성에게는 부계혈통 보존을 위해서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요한 반면, 그들의 유희 대상으로서의 기생 신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분대화장이 허용됨으로써, 가부장제하에서의 이중적인 성윤리관이 화장문화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보여진다. 또한 그 당시 '미인박명(美人薄命)' 사상이 문화적 관념으로 자리잡음으로써 미인(美人)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 가꾸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형성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41]

▷ 단아한 이마, 맑고 고운 눈, 작고 매혹적인 입술에 좁은 어깨 등 당시 미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림 6. 조선시대 미인도 (신윤복)_

조선시대의 색조화장은 백색피부 호상의 영향을 받은 분화장과 눈썹화장, 연지 등이 있다. 연지화장은 입술과 양 볼이나 이마에 사용되었는데, 입술은 일본의 가부끼 화장처럼 입술 끝에만 빨갛게 발라서 멀리서

41) 김광숙 전게서 p.25

보면 홉사 구슬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혼례식 때 양 볼에 찍는 연지 이외에 이마에 곤지를 찍었다.[42]

조선시대에는 나름대로 화장법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숙종 때 이미 화장품을 팔러 다니는 행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성들은 자가 제조된 화장품 이외에 화장품의 구입은 대부분 방문판매를 통하여 구입했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사회가 유교적인 관념으로 인하여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화장품과 화장구 등을 취급하는 매분구와 일상생활 용품을 파는 방물장수를 통해 방문판매가 이루어졌으며 따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육의전의 분전(粉廛)이 있었다. 조선후기에 가서는 분전 이외에도 일반 사장(私匠)이나 연지나 분을 파는 가게들이 생겨났으나 그리 활성화되지는 못했다.[43]

한편 사대부가의 가정백과라고 할 수 있는 [규합총서]에는 여러 가지 두발형태, 열 가지의 눈썹 그리는 법, 갖가지 입술연지 바르는 법을 소개하였고,[44] 연지의 제조방법도 수록되어 있다. 이것을 보아서는 왠만한 가정에서는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연지는 홍람화를 직접 재배하여 꽃잎을 거두어 말려서 빻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

42) 전선정 전게서 p.301
43) 전선정 전게서 p.302
44) 전완길 전게서 p.90

Ⅳ. 현대 한국 입술화장문화의 시대별 특성

1. 1900년-1940년대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는 신식 화장법이 물밀 듯이 밀려 들어왔다. 처음에는 주로 일본과 청나라로부터 유입되었으나 한일합방 이후 1920년대에는 수입선이 프랑스를 주로 한 유럽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시기에는 신식 화장품과 화장법이 도입되었지만, 화장을 하면 팔자가 세진다는 등 선비들의 유교사상이 더욱 여성들을 움츠려 들게 했던 사회풍조 때문에 일부 여성들에게만 사용이 되어왔다. 따라서 어른들 몰래 화장하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화장법이 확산되기도 했다.[45]

신식 화장법은 재래 화장법에 비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술연지의 색깔이 진해지고 분을 하얗게 발랐으며, 향수의 향내와 비누의 향내가 강렬해졌다.

이와 같은 화장법은 기생 및 접대부들에게서 먼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여염집 여성들에게는 반발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여염집 여성의 화장색조는 종전보다 더욱 엷어지고 피부를 희고 깨끗하게 다듬는 정도의 담박한 멋내기로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단아한 빗질에 안방마님의 우아한 담장(淡粧)을 사극(史劇)에서 보여준다.[46]

여성의 개방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1920년대에는 화장품의 수입이 활발해졌고 국산 화장품도 선보이게 되었다. 당시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

45)김춘득 전게서 p.180
46)김춘득 전게서 p.180

에 대해 언론에서는 패션과 화장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실었는데 1927년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지는 진분홍빛 연분홍빛, 등색, 벽돌빛 등이 있으나 특히 외국품에는 색의 종류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광선이나 그 사람의 얼굴빛을 따라 선택하면 화장의 효력은 한층 더 충분히 나타날 것입니다. 밤에 바른 연지는 붉은 색이어야만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화장품 가운데도 분빛과 연지빛과 향기는 그 시대의 유행을 말하는 것이므로 의복의 유행과 한가지로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개화기에 이미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한 연지화장이 있었으며 의상과 시간대별로 다른 화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7]

1920년대에 입술화장은 무성영화의 시대로 입술색은 선명하게 하고 진했으며, 입술모양을 보면 윗입술은 아주 얇고 작게 아랫입술은 약간 도톰하게 그리고 입술윤곽선의 양끝은 원래의 자기의 입술보다 더 늘려서 뾰족하게 하여 하트모양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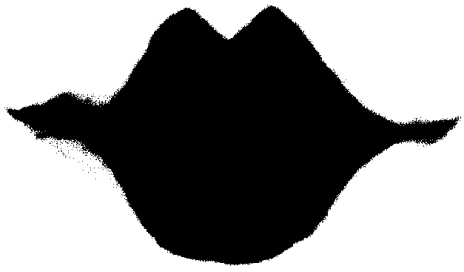


그림 7. 1920년대 입술모양

47) 전선정 전게서 pp.319

1930년대는 영화산업의 대중화로 무성 영화시대에서 초기 유성 영화시대가 오면서 헐리우드 스타들의 화장품이 유행하게 되었다.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가르보와 독일의 여배우 마늘렌느 디트리히가 대표적인 여배우로 이들의 메이크업은 당시 큰 유행을 가져왔다.[48] 이 시기의 입술 화장은 20년대보다 좀더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어 자연스러워졌으나 아랫입술은 여전히 큰 곡선으로 그렸다. 광택이 있는 입술로 마치 별들이 입술을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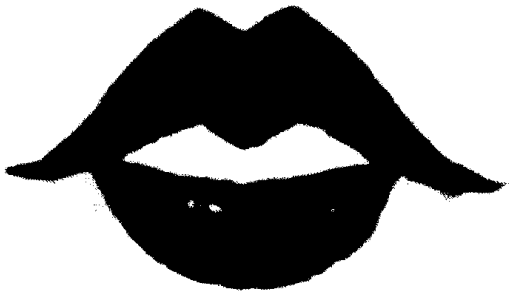


그림 8. 1930년대 입술모양

그림 9. 그레타가르보

그림 10. 마늘렌느 디트리히

48) 김춘득 전게서 p.199

입술산이 둥그렇고 아주 정확하게 그렸으며 색상은 빨간색보다는 자주색을 혼합한 색이다. 이시기는 고대 이집트인의 화장과 비슷하였다.

한편 1933년 일본 유학생 오엽주는 종로의 화신백화점에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미장원을 개업하고 새로운 화장법과 바니싱크림 등의 신식 화장품을 소개하였다. 또 그는 입술 연지를 아랫입술만 빨갛게 바르고 눈썹을 초승달 모양으로 그리는 화장법을 유행시키기도 하였다.

1940년대 입술화장은 윗입술을 두 개의 대칭이 되는 곡선으로 둥글고 과장되게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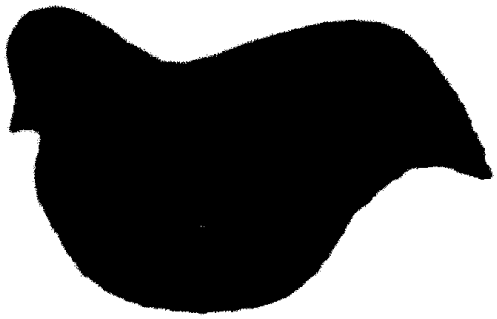


그림 11. 1940 년대 입술모양

1945년 8.15 해방 이후 여성들은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일원으로 남녀평등과 여성권익 보호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서구문명이 급격히 밀려옴에 따라 미용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였으며 수입화장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2. 1950년대

1950년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나자 모두들 피난길에 올랐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패션의 풍속도가 새롭게 전개되어 일명 '양부인'들의 롱스커트에 강한 컬의 퍼머 스타일, 붉은 입술연지, 매니큐어 등 이국적인 풍경이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 퍼져갔다. 이러한 정경은 일본에서도 일본 진주군의 부인들을 흉내낸 여성들의 복장과 화장이 급속하게 변화해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49]

또한 이 시기에는 수입화장품, 밀수 화장품, PX유출품의 범람이 가속화되다가 1956년 처음으로 프랑스 '코티'사와 기술제휴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코티분이 국산화 되어 품질을 혁신했고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화장품 시장은 성숙기를 맞이하게 된다. 영국 영화의 상영으로 오드리 햅번 등 영화스타의 모방의 헤어, 화장, 복식이 유행했으며, 여성들은 무비판적으로 서양패턴을 따랐다.

미국잡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종전 이후에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부인생활]이란 여성잡지등을 통해 개성을 살리는 미용법이 알려졌고 팬케익 화장법이나 화운데이션 화장법 등도 알려졌다.[50]

평면적인 얼굴의 형태를 가진 한국여성들은 서양여성들의 입체적인 얼굴을 선호하여 입체화장이 유행하게 되었다. 밝은 색의 피부톤에 약간 인위적인 화장을 했으며, 눈썹은 두껍고 진하며 속눈썹을 강하게 붙이고 아이라이너를 길게 빼 그렸고 눈매의 상하에 확실한 선의 눈매를 강조하였다. 입술은 새빨갛게 그렸으며 아이섀도우가 보급되었다.

입술화장은 그림 12와 같이 여성스러움을 자아내는 부드러운 입술모양이 유행하였으며 입술을 둥글고 도톰하게 하트모양으로 그렸으며 붉은 립스틱과 새로운 색조의 핑크립스틱이 유행했다.

---

49) 김춘득 전게서 p.205
50) 김춘득 전게서 p.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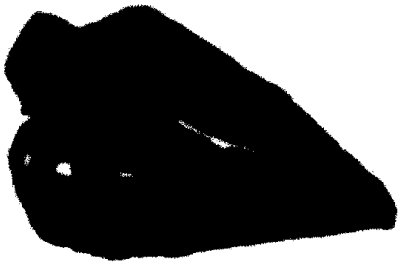


그림 12. 1950년대 입술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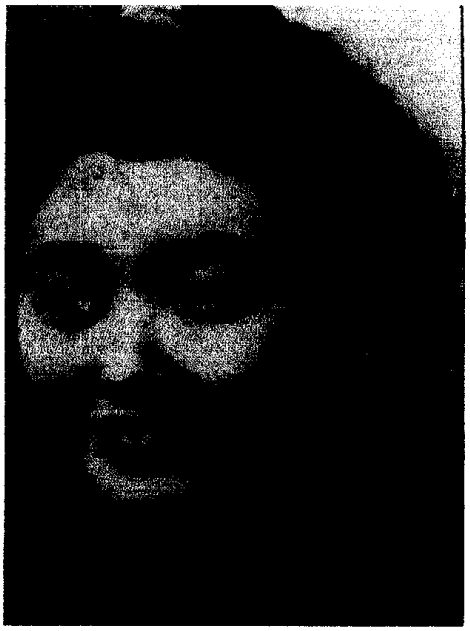


그림 13. 1955년 12월 '여원'표지

제 2차대전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영화산업이 번창한 50년대는 육체파 여배우들이 관능미로 영화팬을 사로잡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이 곧 농염한 관능미의 척도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마를린 먼로의 정열적인 입술과 블론드 색깔의 헤어로 섹시미를 한껏 돋보이게 했으며 비즈니스 세계에 진출하는 여성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51)

51)김춘득 전게서 p.207

3. 1960년대

이시기는 경제발달에 이어 우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로 미국에서는 아폴로호가 발사되어 우주시대가 도래하면서 스타일이나 유행의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

일본식 대신에 미국식, 즉 유럽풍의 신화장기술이 유입되었으며 당시로는 직업여성을 중심으로 화장 문화가 형성되었다. 화장품 생산과 품목에는 많은 변화를 보여 화장품의 국산화가 늘어났으며 짙은 색조화장과 매니큐어의 사용도 전에 없는 변화중의 하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화장품의 기능이 세분화되고 바니싱 타입의 크림과 백분의 소비량이 격감한 반면에 액상색분(화운데이션)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연지도 고형으로 변모하여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당시 미술계의 영향이던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기 개성을 표출시키기 위해 얼굴윤곽과 눈, 코, 입을 강조하여 현저하게 노출시키는 화장법, 이른바 입체화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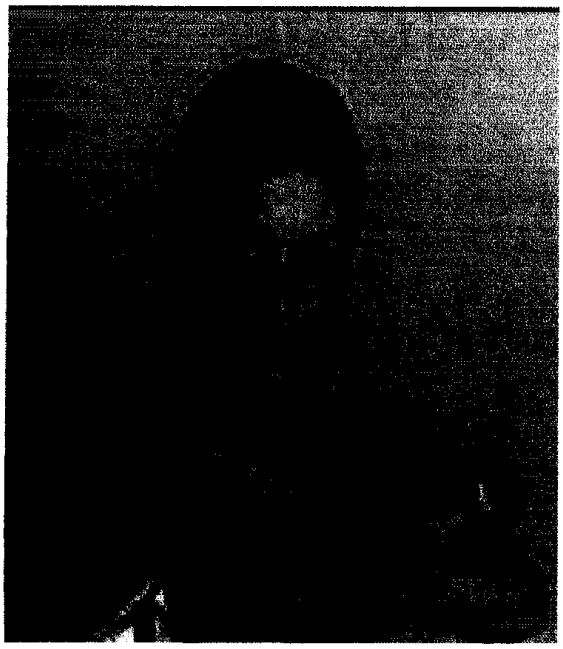


그림 14. 트위기

그림 15. 1960년 '여원'표지

이 시기에는 세계적인 톱 모델 트위기의 스타일은 선풍적인 유행을 가져와 눈매를 강조하는 화장이 유행하였으며 입술화장은 입술선만 강조하고 색상은 흰베이지, 펄베이지, 핑크베이지 등이 누드톤이 주를 이루어 입술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이시기의 펄의 사용은 우주적인 느낌을 살리는 재료이기도 했다.[52]

입술화장은 그림 16에서와 같이 립펜슬로 입술선을 조금 진하게 그려주었고, 영화배우의 도톰한 입술모양을 많은 여성들이 흉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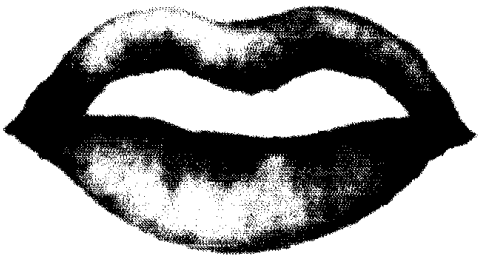


그림 16. 1960년대 입술모양

그림 17. 1964년 태평양 광고

그림18, 1964년 태평양 브루버드 광고

52) 김춘득 전게서 P.216

아래의 기사를 보면 피부색이나 연령, 의상색과도 조화를 고려하여 입술 컬러를 선택하는 방법, 입술화장 잘하는 방법, 얼굴형에 따른 입술 화장법이 제시되어 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얼굴화장에 있어서 눈과 입술이 주 포인트가 된다. 특히 입술은 너무 뚜렷하고 진하게 해도 천하게 인상을 주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다른 화장은 다 짙게 하고 입술만은 그냥 두어도 병적으로 보일 수 있다.

[루쥬선택법]

입술화장에 앞서 우선 루쥬선택부터 잘 알아야 겠다. 루쥬는 손가락에 문질러 보면 잘 펴지고 부드러워진다. 다음에는 빛깔선택이다. 얼굴빛이 희고 머리빛도 약간 붉은 분은 핑크나 밝은 빨간색, 얼굴과 머리빛이 검은 분은 어두운 붉은 빛이나 진달래빛이 도는 붉은 색을 쓰는 것이 좋다. 물론 얼굴빛만이 아니라 연령, 옷빛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이가 많은 분은 밝은 색은 삼가고 반대로 젊은 분은 밝은 색을 쓰는게 좋은 인상을 준다.

[루쥬 칠하는 법]

루쥬를 잘 칠하려면 입술바탕이 매끈해야 한다. '까제'로 입술의 습기를 깨끗이 닦고 '콜드크림'으로 닦아낸다. 붓에다 루쥬를 묻혀 윗입술은 가운데서 양쪽으로 그리고 아랫입술은 끝에서 끝까지 한번에 그린다. 윤곽을 그린다음에는 '스틱'으로 흠뻑 칠하고 새끼 손가락 끝으로 문질러 잘 핀다. 다 칠한 다음에는 화장종이로 꼭꼭 눌러서 루쥬가 겉돌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

[얼굴모양과 입술]

입술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얼굴모양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①둥근얼굴=입술전체를 약간 크게 그리고 아랫입술에만 진하게 바른다.

②긴얼굴=아랫입술은 한가운데서 입구석까지 흠뻑 윗입술은 가운데만 짙

게 그린다.

③모난얼굴=윗입술은 굴곡을 동그스름하고 뚜렷하게 그리고 아랫입술은 둥글게 그린다.

④하트형의 얼굴=윗입술은 약간 기름하게 그리고 아랫입술은 약간 모지고 두껍고 길게 그린다.

⑤능형의 얼굴=너무 좌우로 펼쳐서 그리지 말고 아래 위로 흠뻑 칠해서 짙게 그린다.

<출처:조선일보 1960년 3월15>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입술화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시기였으며 립스틱의 선택요령, 입술화장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얼굴형에 따라서도 입술형태를 달리한 것을 알 수 있다.

4. 1970년대

1970년대 접어들면서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한 고속 성장기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것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어 갔다.

1971년 국내 최초로 화장품회사(태평양화학)의 주도하에 메이크업 캠페인으로 색채화장에 대한 거부인식을 불식시키고 입체화장이 생활화되었고 샴푸, 바디제품, 팩제품 등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 의상에 맞추어 화장하는 토털코디네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의상의 유행이 화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1972년에는 색채화장이 구체화된 해로 부드러운 색조에서 녹색, 청색, 보라색을 중심으로 명도를 낮추고 채도가 높은 원색계 색상을 사용했고 녹색과 오렌지색의 혼합이 유행색이었다.

1976년에는 패션과 함께 동양무드가 가미된 화장이 선보였고 입술색상은 부드러우면서도 침착한 색조인 크림 베이지, 브라운, 오렌지색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듯 서양의 미를 따라 부자연스럽게 연속되던 화장이 동양인의 얼굴에 맞게 자연스럽게 바뀌어 갔다.

이시기에 입술화장은 립라이너를 꼼꼼히 사용하였고 글로시한 입술이 열풍이었다. 입술색은 그다지 짙지 않았지만 여전히 대조적인 곡선으로 선명하게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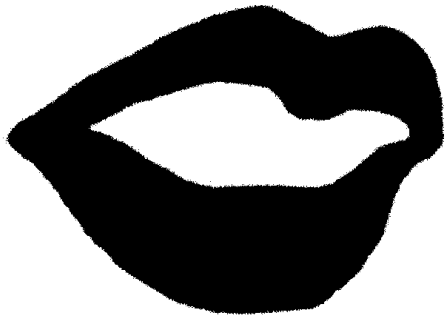


그림 19. 1970년대 입술모양

그림 20. 1970년
한국화장품(쥬단학)광고

그림 21. 1972년 태평양화학광고

그림 22. 1978년 태평양화학 광고

그림 23. 1979년 미보라 광고

중앙일보 1970년 11월 27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신선한 자연미(自然美)를 추구하는 새로운 화장법(化粧法)'하여 자연스러운 화장법을 제시하였다.

"여성 몸매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의상의 유행에 따라 헤어스타일과 화장도 손대지 않은 듯한 신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얼굴화장은 피부색 그대로 때로는 조금 어두운 색조를 내고 그대신 모든 화장품에 반짝이는 성분을 포함시켜 윤기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유행이다.

입술화장=입술이 늘 트면 [아이크림]을 잘 때 바르고 화장할 때는 반드시 솔로 그려야 라인이 선명하고 오래 지워지지 않는다."[53]

중앙일보 1972년 12월 29일자 기사에서는 73년에 유행할 메이크업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깊게 파진 쌍커풀의 눈과 반달같이 가는 눈썹 그리고 붉은 장미꽃잎과 같은 입술화장등 마치 40년대의 '그레타 가르보'를 연상시키는 얼굴모습이 73년대네 유행될 화장 스타일이다. 얼굴피부는 맑고 하얗게 하고 눈과 입술윤곽을 강조시키며 특히 입술위나 눈가까이에 검은 점을 찍어 고전적인 분위기를 내도록 하는 것이 유행이다.

눈의 음영을 짙게하기 위해 눈바로 밑까지 내려오는 챙모자를 쓴다거나 붉은 입술을 강조하기 위해 검은 벨벳의 옷을 입는등 73년 여성 패션계는 옷이나 액세사리보다는 얼굴화장이 주역(主役)이 될 경향이 짙다. [54]

1977년도에는 스킨의 표현이 부드럽고 자연스런 느낌(베이지색)의 피부로 표현되는 트렌드를 설정했고 두꺼운 피부화장이나 지나친 광택, 너무 피부가 희거나 붉게 표현하지 않았으며 고전적인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입술라인은 도톰하고 섹시한 모양으로 하되 입술산은 모나게 양 입술 끝을 직선적으로 라인을 그리고 아랫입술은 섹시하고 둥글게 레드나

53) 중앙일보 1970년 11월27일자
54) 중앙일보 1972년 12월29일자

핑크, 브라운 계열을 사용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직선적인 윗입술에 중점을 두어 표현한 것이다.[55]

55)김춘득 전게서 p.228

5. 1980년

1980년대 초 흑백에서 컬러TV의 대중화로 색채에 대한 수요가 복식과 화장에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부분적으로 수입 자유화된 선진국의 다양한 색채화장품 수입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선택하는 지적 소유자 시대가 되었다.

경기의 호황으로 생활의 수준은 향상되고 소비문화가 정착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현대화의 경향이 뚜렷해 졌다. 개성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기적인 사회문화의 의식이 확산되었다.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감정에 충실하고 패션감각을 일상생활 속에서 센스있게 표현하게 되었다.[56]

1982년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로 스타일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88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화되고 더욱 개성적인 자기표현과 과감한 연출이 두드러졌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색상사용이 다양해지고 뚜렷해졌다.

서구형의 미의 기준이 등장하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당시 미국의 인기 여배우 브룩쉴즈의 자연스럽고 굵은 눈썹으로 자신감 있고 활동적인 여성상을 표현하였다. 신디 크로포드, 나오미 캠벨같은 근육질의 모델들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건강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계 오페라 가수 키메라의 등장으로 날아가는 새의 부리를 표현한 화장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색조화장은 더욱 세련되어지고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였으며 1988년 올림픽해를 맞아 세계 속에서 동양의 신비,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57] 동양인의 황색피부에 잘 조화되는 브라운 색상이 유행하고 입술색은 황금색 펄과 벽돌색의 조화로 세련되고 매혹적인 분위기의 색조화장이 유행하였으며 눈썹과 입술선도 동양적인 곡선형으로 표현되었

56)김춘득 전게서 p.229
57)김춘득 전게서 p.236

다.[58]

입술화장은 여전히 번들거렸으나 다양한 색조가 사용되었고 놀라운 금속효과도 연출되었다.

그림 24. 1980년대 입술모양

그림 25. 1980년 태평양화학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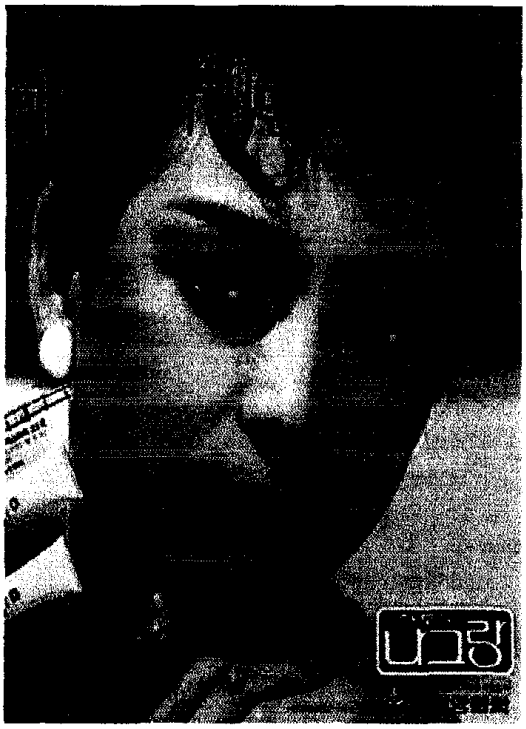


그림 26. 1984년 아모레나그랑 광고

58)전선정 전게서 p.359

그림 27. 1983년 태평양화학 광고

그림 28. 1983년 태평양화학 광고

전통적이고 정적인 아름다움을 자기 향상을 위한 내외적인 노력과 건전한 생활패턴을 추구하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조화시켜 아름다운 선의 화장으로 표현했다.

조선일보 1981년 3월24일자 신문에는 입술화장법부터 클렌징법까지 제시하였다.

"얼굴화장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피부색이나 골격구조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색상으로 자기에게 어울리는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중 입술화장만은 유독 자기에게 어울리는 분위기를 다양하게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 다른 부분 화장은 자연스럽게 색을 펴야하고 음영(陰影)의 효과로 색의 강도를 조절하여 피부색과 융합되도록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술화장은 그자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 상관없다. 다만 입술선과 립스틱의 색상조화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드러운 색상으로 입술모양을 곡선으로 살렸을 때 온화함을 느낄 수

있으며 선명한 색상으로 입술윤곽에 직선적인 각을 주면 이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입술이 크고 두터운 경우 너무 연한색이나 진한색이나 진한색, 또는 펄이 있는 립스틱은 피하도록 하고 중간 밝기의 색을 입술안쪽 중심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다.

얇은 입술은 부드럽고 팽창되어 보이는 따뜻한 색상이 잘 어울리며 펄이 많은 립스틱이나 광택이 있는 립 그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경우 입술화장은 뚜렷한 입술윤곽에서 깔끔한 인상을 느끼게 되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다 살려 그려주면 부자연스러우므로 윗입술의 가운데 부분과 아랫입술의 양쪽 가에 색을 강조하면 효과적이다.

입술화장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오래가게 하려면 깨끗이 손질된 입술에 파우더를 바르고 립펜슬이나 입술용 브러시로 입술윤곽을 그린 후 립스틱을 바르도록 한다. 입술은 다른 피부와는 달리 피지분비가 없고 점막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조건이나 신체 내적인 조건으로 항상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입술화장을 지울 때는 반드시 클렌징크림이나 로션으로 유화시켜 화장지로 닦아낸 후 세안하는 것이 좋다. 저녁 손질 때는 영양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주어 입술을 보호하도록 한다."

위의 기사를 보면 이 당시 입술화장이 중요시되었고 립글로스를 사용함으로써 광택있는 입술화장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입술보호를 위한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다.

여성코너 美容

입술화장

얇은입술엔 부드러운色 어울려

지울땐 꼭 크림-로숀사용토록

그림 29. 조선일보 1981.3.24 조간10면

80년대 중반과 후반은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가 주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칼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퇴색하고 피부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59] 따라서 입술화장도 핑크나 오렌지 등 엷은 색을 선정하고 립 글로스와 함께 사용하며 입술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었다.[60]

1980년대 말에는 색조화장품에 스킨케어 개념이 도입되어 오염된 환경에 화장을 하는 것이 피부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59)김춘득 전게서 p.235
60)중앙일보 1988년 2월1일자

6. 1990년대

90년대의 생활패턴은 개성화시대의 도래로 개인적인 욕구충족, 미래지향, 정보화, 풍부한 상상력과 욕망의 세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생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이트닝 기초제품의 본격적인 출시를 유도했다. 또한 에콜로지, 내츄럴, 소프트, 라이트의 단어가 시대를 대변하는 핵심어로 등장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딱딱하고 긴장된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여유있는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다. 패션의 실루엣도 견고함이 느껴지지 않는 착용해서 기분 좋은 실루엣이 주제가 되고 메이크업도 친화력이 있는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의 색상이 선호되었다.

90년대 초반은 에콜로지와 복고풍을 기본 바탕에 두어 인간과 인간, 자연과 자연의 조화속에서 평화, 사랑, 낭만을 추구하여 전체적으로 과장이 없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유행하였으며, 90년대 중반에는 미래지향, 우주지향이라 할 수 있는 광택, 투명, 메탈릭한 감을 소재로 한 의상에 광택이 있는 골드 빛 브라운이 유행메이크업 컬러로 자리매김 하였다. 메이크업 역시 우드 브라운, 어스 브라운 컬러에 자신만의 브라운색을 창조하는 패턴으로 모방이 아닌 개성적인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림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가을 메이크업은 60, 70년대 복고풍의 화장법에 자연주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색조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갈색계통으로 차분하게 가라 앉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 주력하였다. 입술화장은 새도우와 같은 색 계열로 하는 듯 마는 듯하게 했다.[61]

1995년은 순수와 생명력을 잃기 쉬운 바쁜 현대 여성에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활기찬 생명력을 표현하는 그린이 부각되었고 베이지 핑크,

61) 중앙일보 1993년 9월 20일자 신문

오렌지, 로즈컬러 등 피부 본래의 투명함을 살린 메이크업이 부각되었다.

1996년에는 짙은 눈매와 볼륨감있는 립라인으로 복고적인 섹시함을 추구하였고 현대와 복고의 조화스런 멋을 세련되고 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였다. 인위적이지 않은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복고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 카키색의 눈화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핑크계열의 펄이 가미된 차갑고 신비로운 립컬러로 50-60년대의 다소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섹시 메이크업을 현대적 감각의 네오섹시(neosexy)메이크업으로 완성되었다.[62]

1997년에는 자연에 대한 그리움으로 누드메이크업이 여전히 강세이며, 입술화장도 원래 입술선에 가까운 베이지, 브라운, 오렌지 등 자연스러운 색상이다. 립스틱 색상이 밋밋한 만큼 입술선을 또렷하게 그려주고 립글로스나 펄이 들어간 립스틱을 덧발라 촉촉한 광택을 더해주는 것이 포인트이다.[63]

1998년에는 IMF로 인한 경제침체로 어두운 사회분위기를 탈피하려는 성향을 반영하여 그린과 핑크색상을 기본으로 하는 파스텔톤 핑크, 퍼플 그린톤이 부드럽고 세련된 색상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64] 합리적, 이성적으로 자기 발전을 이루어가고 개성표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감각적이어서 단순히 유행을 쫓아가는 것 보다는 자유롭고 다양하게 스스로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1990년대의 입술화장은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입술의 모양을 달리 그린다. 하지만 항상 완벽한 입술선으로 처리해 매우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준다. 동양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입술보다 입술선을 크게 그리는 것이 유행되기도 했다.

---

62)김춘득 전게서 p.239
63)중앙일보 1997년 2월10일자 신문
64)김춘득 전게서 p.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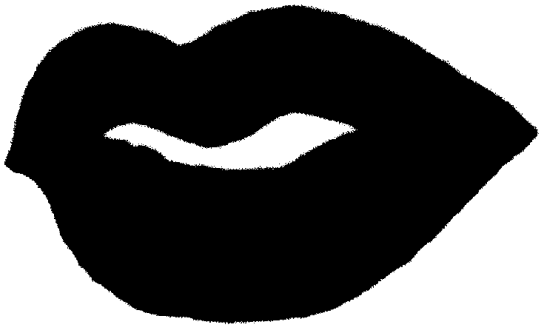


그림30. 1990년대 입술모양

그림 31. 중앙일보 1993년 9월20일

그림 32. 중앙일보 1997년 2월10일

그림 33. 1990년 광고

그림 34. 1993년 태평양화학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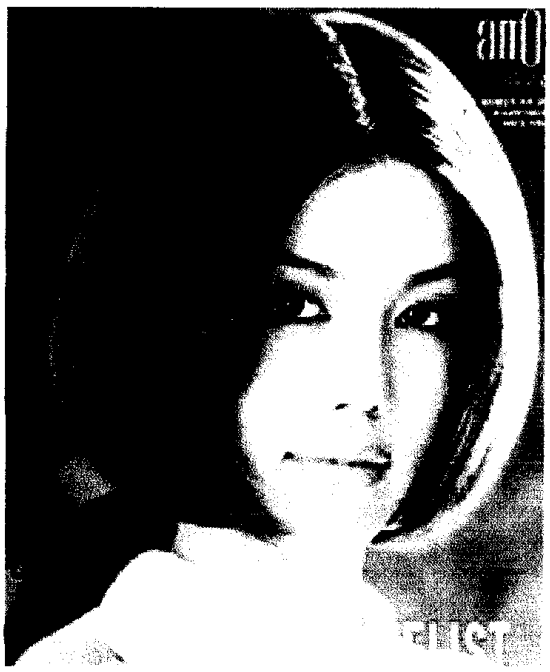


그림 35. 1997년 태평양화학 광고

7. 20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보다는 인간적인 감성과 본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개성 중시, 여유와 휴식에 대한 가치 증대가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메이크업 트렌드(trend)는 질감의 다양화, 광택·윤기의 확대 등이 강조되고 감성, 활동성, 여성만의 부드러움 등을 트렌드 컨셉으로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색상의 변화는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많이 변화하였는데, 봄에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소프트하며 로맨틱한 컬러들이 많으며 따스함과 순수함, 그리고 신선함이 배어있는 컬러가 주를 이룬다. 여름에는 연한 베이지부터 선명한 붉은 입술색까지 다양하며 글로스를 사용하여 반짝이는 느낌을 강조한다.[65]

2001년 가을 트렌드를 보면 눈매는 강조하되 입술은 한 듯 안한 듯 화장하는 것이다. 2001년 8월 24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 듯 안한 듯, 립메이크업 = 눈화장을 강조하는 대신 입술화장은 입술 그대로의 색상이 살아있는 분홍색이나 살색계열의 광택이 적은 립글로스 또는 아예 바르지 않는 것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눈을 강조하면 립스틱은 연해지는 것이 원칙. 입술표현은 눈매보다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원칙. 입술표현은 눈매보다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이번 가을의 유행경향이다. 지난 여름에 유행하던 반짝이는 립글로스 대신에 광택없이 매트한 베이지와 핑크 계열의 립스틱이 많고 특히 펄 아이섀도우를 사용했을때에는 매트한 립스틱을 쓴다. 립스틱은 거의 바르지 않는 것이 유행이지만 가을 하면 떠오르는 빨간 립스틱은 여전

65) 중앙일보 2001년 5월10일

히 강세이다. 단 립라이너는 사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완벽한 입술선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시즌의 특징. 지나치게 깔끔하게 그리지 않고 약간 뭉개어 바르는 것이 요령이다." 66)

이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당시 입술화장을 자연스러움이 강조되었고 완벽한 마무리는 하지 않았다.

겨울에는 다양한 색상이 공존하면서도 색상 각각의 개성이 부각되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클래식한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는 레드·골드 계열의 색상과 쉬크(chic)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퍼플계열, 내추럴리즘이 결합된 색상 연출을 돋보이게 하는 브라운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입술화장은 화려하면서도 내츄럴한 분위기와 지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글로시한 광택감과 은은한 퍼플빛 펄의 느낌으로 투명하면서도 화려한 입매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입술화장은 최근의 추세에 따라 자연스럽고 촉촉하며 글로시한 입술화장이 중심 트렌드를 형성하며, 립라이너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입술선을 형성하고 립스틱을 발라준 뒤 립글로스로 촉촉한 느낌을 준다.

2000년대 입술화장을 분석해 보면 가장 일반적인 화장기술인 '그라데이션(gradation)'의 경향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입술화장의 과장된 라인보다는 본래의 입술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데 립라이너가 사라지고 있으며 간단히 립 글로스로 살짝 터치하거나 파운데이션으로 입술선을 아예 감추는 패턴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주로 기초화장품에 사용돼 온 레티놀이 색조화장품에서도 활용되어 입술피부의 치료기능을 가진 코스메디컬 개념의 이중구조형 립스틱이 생겨났다.

---

66) 중앙일보 2001년 8월 24일자 신문

그림 36. 2000년대 입술모양

최근 개발되는 립스틱은 색채, 사용감, 메이크업 효과 외에 립케어(lip care)개념에 기초한 기능성 부여가 초점이 되고 있다. 즉 보습효과와 자외선 차단효과를 가지는 제품의 등장으로 립스틱에 기초 화장품의 기능이 도입된 것이다. 67)

그림 37. 2000년 태평양 라네즈 광고

그림 38. 2000년 태평양 라네즈 광고

67) 하병조 화장품학 수문사 1999 p.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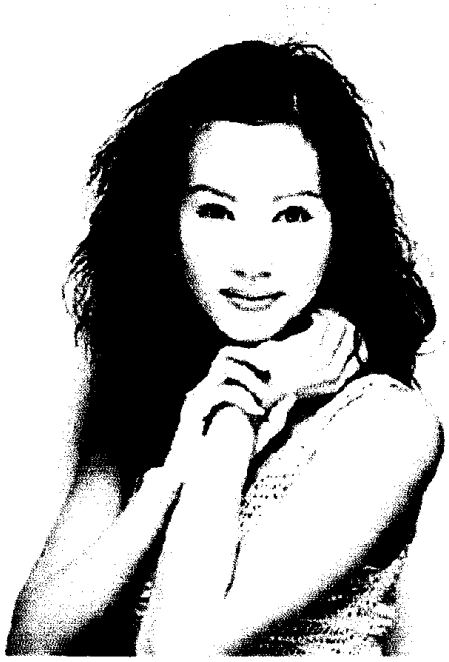


그림 39. 드봉 LacVert 화장품 광고 (2000.7)

그림 40. 2001년 한국화장품 광고

그림 41. 2002년 에뛰드 광고(태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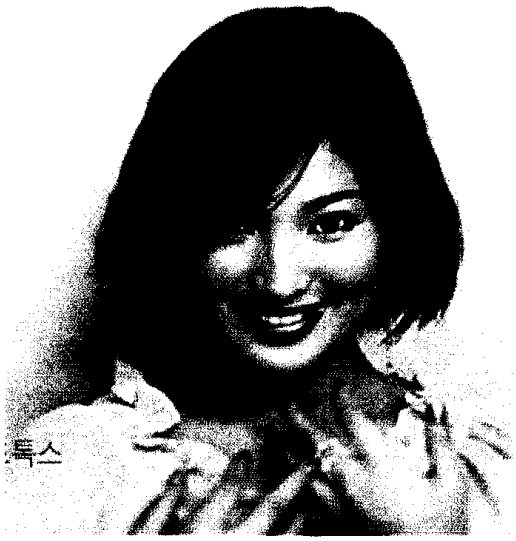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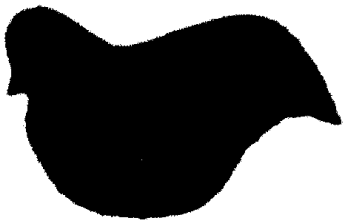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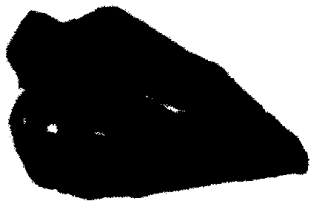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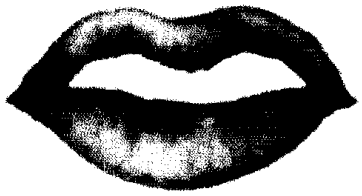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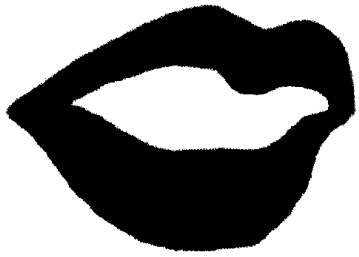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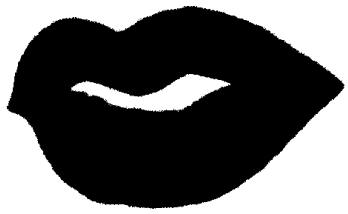


그림 42. 2002년 에뛰드 광고 (태평양)

표 1. 연대별 입술화장의 변화

년대	입술 모양
1920년대 무성 영화의 시대로 입술색이 진했으며 입술모양은 작고 끝이 뾰족하거나 하트모양이다.	
1930년대 20년대보다 좀더 자연스러워졌으나 아랫입술은 여전히 큰 곡선으로그렸다. 광택이 있는 입술이 유행하였다.	
1940년대 윗입술을 두개의 대칭되는 곡선으로 둥글고 과장되게 그렸다.	
1950년대 여성스러움을 자아내는 부드러운 입술모양이 유행하였으며 입술을 둥글고 도톰하게 하트모양으로 그렸으며 붉은 립스틱과 새로운 색조의 핑크립스틱이 유행했다.	
1960년대 흰베이지,필베이지,핑크베이지 등이 등장하였으며 립펜슬로 입술라인을 조금 진하게 그려 주었고, 영화배우의 뾰로통한 입술모양을 많은 여성들은 흉내냈다.	

1970년대 글로시의 열풍이 일었으며 입술색은 그다지 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대조적인 곡선으로 선명하게 그렸다.	
1980년대 입술은 여전히 번들거렸으나 다양한 색조가 사용되었고 놀라운 금속 효과도 연출되었다.	
1990년대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입술의 모양을 달리한다. 하지만 항상 완벽한 립라인으로 처리해 매우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준다. 동양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입술선보다 입술선을 크게 그리는 것이 유행되기도 했다.	
2000년대 입술화장의 과장된 라인보다는 본래의 입술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데 립라이너가 사라지고 있으며 간단히 립 글로스로 살짝 터치하거나 파운데이션으로 입술선을 아예 감추는 패턴이 선보이고 있다.	

V. 입술화장의 방법 및 분류

얼굴에서 움직임이 가장 많은 부분은 입술이다. 입을 삐죽거릴 때에나 미소를 지을 때 등 어떠한 표정을 지을 때 입술의 형태나 각도를 고려하여 메이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립스틱 색상 선택이나 입술의 형태 등 입술화장에 있어서 많은 주의를 요한다.

아마도 입술화장을 하지 않는 여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노메이크업이라 해도 입술화장은 빼놓지 않고 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입술색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립스틱 컬러와 질감에 따라 섹시하게, 편안하게, 단정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입술화장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립스틱

1) 립스틱의 명칭 (lipstick in any language)[68]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립스틱의 명칭과 제품을 표2에 나타내었다.

표 2. 립스틱의 명칭

립스틱의 명칭	국 가	제 품
lippenstift	독일(German)	"lip pencil"or "lip crayon"
rossetto	이탈리아(Italian)	"rouge"
Làpiz para los labios	스페인(Spanish)	"lip pencil" or "lip crayon"
Rouge à lèvres	프랑스(French)	"lip rouge"
K'ou hung	중국(Chinese)	"scarlet mouth"
kuchi-beni	일본(Japanese)	"red lip"

68) Meg Cohen Ragas (1998) Read My Lips Chronicle books 1998 p.33

2) 립스틱 분류 (a lexicon of lipstick) - 마감(finish)에 의한 분류[69]

(1) mattes

밀랍(wax)과 피그먼트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연화제는 적게 함유된 것으로 반짝거림이 없는 질감을 원할 때 사용한다. 보통의 립스틱 보다 오래 지속되며 색상 표현력이 강하다.

그림 43. mattes

(2) cremes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질감으로 글로스 형태보다 반짝임은 덜하지만 매트한 질감보다는 광채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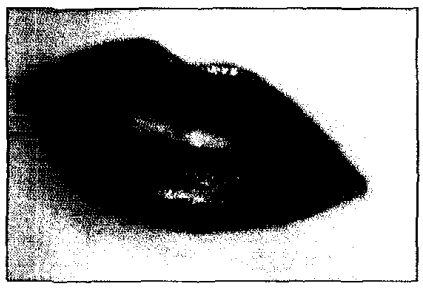


그림 44. cremes

(3) glosses

연화제(emolliant)가 다량 함유되어있어 반짝임은 많으나 색상표현은 적은 편이다. 질감의 특성상 스틱의 형태보다는 pot이나 튜브용기에 담겨진다. 내츄럴한 표현에 많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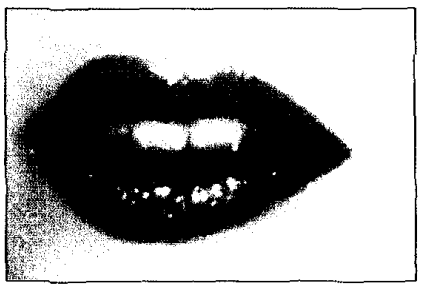


그림 45. glosses

(4) sheers and stains

다량의 오일(oil)과 보통량의 밀랍(wax)을 포함한 형태이다. 글로스에 가까운 형태이며 약간의 색상표현이 가능하다. 입술을 투명하게 해준다.

---

69) 그림출처 Kevyn aucoin Making faces Little, Brown & Company 1997

(5) shimmers

90년대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으로 갈치 비늘과 운모와 실리카 색소가 포함된 펄을 사용하여 광택이 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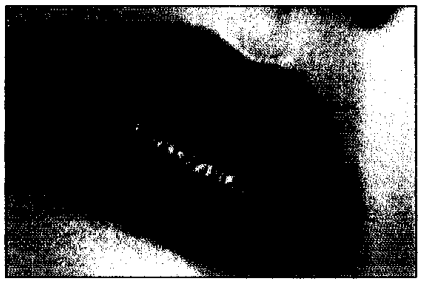


그림 46. sheers and stains

(6) long-lasting

입술에 많은 접촉이 있어도 립스틱 색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실리콘 오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47. long-lasting

(7) lip liner

글로스나 립스틱을 바르기 전후 입술에 라인을 그리거나 입술전체에 컬러를 바를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의 립스틱보다 연화제(emollient)가 적고 밀랍(wax)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립스틱이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림 48. lip liner

3) 제품의 분류 - 형태(shape)에 의한 분류

(1) 립스틱(lip stick)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스틱상태로 되어 있거나 용기에 담겨져 있다. 발색도가 진하므로 립브러시를 이용하여 입술모양을 수정 보완한다. 색상과 질감이 다양하고 입술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이다.

(2) 립크림(lip cream)

젤타입으로 립스틱 색상을 선명하게 하고 촉촉한 입술을 표현해준다.

(3) 립라이너(lip liner)

펜슬타입으로 입술선을 분명하게 하고 입술모양을 수정, 보완한다. 자신이 원하는 입술모양을 뚜렷하게 그릴수 있고 립컬러가 번지는 것을 막아주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잔주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다.

(4) 립그로스(lip gloss)

오일타입으로 입술을 촉촉하고 윤기를 주어 입술을 보호한다. 화장을 안한 듯한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고 립스틱의 색을 맑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사용한다. 점도가 무르고 발색이 떨어져 번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4) 립스틱의 색상

립스틱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창조해 내고자 하는 이미지와 잘 맞는 색을 고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핑크 계열은 귀엽고 상냥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아함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 화려함이나 생동감을 연출하고 싶을 때에는 로즈계열 색상의 립스틱을, 정열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이미지를 연출할때에는 레드계열 립스틱을 선택한다. 오렌지 계열의 색상은 젊음과 발랄함을 상징하고 브라운 계열은 지적이면서도 차분함을 표현해 준다. 와인, 또는 퍼플계열은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함, 때론 신비스러움을 자아내기도 한다.[70]

자신이 연출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게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피부색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기 위해서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다. 피부색과 머리색, 입술본연의 색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1) 피부색에 어울리는 입술색상

표 3. 피부색에 어울리는 입술 색상

피부색	입술 색상
흰피부 (pale skin)	어떤색상이나 다 무난하게 어울리는 얼굴색으로 핑크계열이나 연한 브라운 색이 가장 무난하며 선명한 레드로 피부를 더욱 투명하게 표현할 수 도 있다. 어두운 퍼플 계열을 사용하면 자칫 창백해 보일 수 있다.
노란기가 많은 피부 (skin with yellow touch)	연한 색상을 바르면 자칫 아파보일 수 있는 피부색으로 짙은 색상으로 입술에 포인트를 주어 피부색을 커버해준다. 입술선을 선명하게 그려 생기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핑크나 오렌지 계열보다는 붉은 기가 섞인 브라운이나 퍼플, 레드 계열이 잘 어울린다.
검은피부 (skin with dark touch)	대체적으로 붉은기가 섞인 브라운 색이 가장 무난하며 오렌지 계열은 검은 피부를 더 강조할 수 있다. 채도가 높은 선명한 레드는 자칫 촌스러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붉은기가 있는 피부 (skin with red touch)	선명한 레드나 와인계열을 깨끗하게 발라 입술에 포인트를 준다. 립라이너로 정확한 선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연한색이나 베이지 색상은 얼굴이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한다.

70) 신단주 메이크업 아카데미 웅진출판 1995 p.85

(2) 의상색과 어울리는 립컬러

표 4. 의상색과 어울리는 입술색상

의상색	입술 색상
레드 (Red)	레드계열의 의상에는 같은 레드계열로 강렬한 포인트를 줄 수 있다.이때의 아이 메이크업은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로만 정리하고 입술에만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단 핑크 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린 (Green)	카키나 그린 계열 의상에는 오렌지나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립스틱이 어울린다. 그린이나 옐로우 색상의 새도우로 아이메이크업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화이트 (White)	하얀 의상의 깨끗함을 살릴 수 있도록 입술에 누드핑크나 베이지 계열 립스틱을 바른다. 립 글로스의 투명한 촉촉함이 더 해진다면 더욱 좋다.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눈매에는 화이트 섀도를 발라주고, 입술에만 레드 립스틱을 발라 포인트를 주는 것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
바이올렛 (Violet)	바이올렛 컬러 의상은 고급스러운 만큼 전체적으로 코디하기가 어렵다. 바이올렛 계열의 메이크업으로 통일하고 립스틱은 의상색보다 한 톤 더 밝게 표현한다. 연한 바이올렛 립스틱에 투명 립스틱을 바르면 효과적이다. 산호색이나 팥죽색톤의 핑크, 혹장미색도 사용가능하다.
브라운 (Brown)	브라운의 은은한 분위기에 맞도록 브라운, 베이지 계열의 내추럴 메이크업을 한다. 옷이 어두운 다크브라운이라면 좀더 화사한 파스텔 섀도와 베이지색 립스틱으로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3) 연령에 따른 색상선택

젊은층은 눈 화장이 포인트가 되며 중년층은 입술화장이 포인트가 되므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진한 입술색상을 선택하게 된다.

젊은 여성은 입술색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색상이 연할 수록 소녀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중년층의 여성은 노화에 의해 입술에 혈색이 사라지게 되므로 옅은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 창백해 보이고 아파보이기 쉽다. 그러므로 혈색이 도는 붉은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적당하다.

(4)코디네이션에 따른 색상선택

헤어나 의상, 악세사리, 다른 포인트 메이크업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도록 컬러를 선정한다.

5) 립스틱의 선택조건[71]

(1) 립스틱 전체가 균일하고 색상이 얼룩지지 않는 것
(2)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여 부러짐이 없어야 하고 매끄럽게 발라지고 퍼짐성이 좋은 것
(3) 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한 것
(4) 립스틱 색이 입술에 착색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입술점막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자극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7) 시간이 경과에 따라 주위에 번짐이 없어야 한다.

립스틱은 같은 색상이라도 입술색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지므로 꼭

71) 하병조 화장품학 수문사 1999 p.125

테스트를 해보도록 한다. 립스틱 색상을 고를 때, 입술에 직접 바르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손등보다는 손바닥이나 손목 안쪽에 발라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색상뿐만 아니라 질감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므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다. 립스틱이 잘 지워진다면 매트한 타입을, 입술이 건조하다면 모이스처 타입의 립스틱이 적당하다.

2. 입술화장 방법

모던하고 세련된 메이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눈과 입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두 부분 모두에 화장을 하되 서로가 시선을 끄느라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우선 입술화장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얼굴윤곽과 입술의 형태와 입술본연의 색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입술분석 : 입술선이 뚜렷한지 확인한다.
   입술색상을 확인한다.
   입술의 상태를 확인한다.
   입술의 형태를 확인한다.
2) 화운데이션으로 입술색과 입술선을 정리한다.
3)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립브러시를 이용하여 컬러를 바른다. 자연스런 입술모양을 따라 그린다. 입술가장자리는 입을 크게 벌려 적당한 각도를 만든 다음 바른다.
4) 립컬러와 같은 색상(혹은 한단계 진한 색상)의 립 펜슬을 골라 입술 바깥선을 그려준다.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선을 그린다. 위의 (3)번과 순서를 바꿔도 무방하나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입술선과 립컬러의 이질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쉽게 사용할 수 있다.
5) 필요할 경우 티슈로 눌러주어 과다한 컬러를 흡수해 주고 질감을 부드럽게 해준다.
6) 도톰한 입술표현을 위해서는 아랫입술 중앙부위에 하이라이트를 주거나 립글로스를 덧발라줄 수 있다.
7) 입술화장을 하고나서는 얼굴형, 피부색, 아이새도우, 의상색 등에 어울리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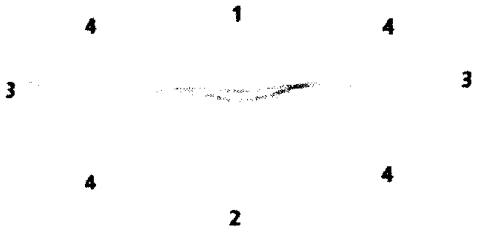


그림 49. 입술 그리는 순서

표 5. 입술화장의 final checkpoint

DO	DON'T
색상선택 및 제품 선택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조명을 고려한다.	수정선이 1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입술주변의 피부를 정돈한다.	의상색과 피부색을 고려한다.
브러시를 사용하여 꼼꼼히 바른다.	한번에 완벽한 입술선을 그리지 않는다.
전체적인 화장이 조화가 되는지 확인한다.	오래된 립스틱은 사용하지 않는다.
	두껍게 바르지 않는다.

3. 입술의 형태에 따른 이미지 및 화장법

1) 입술선이 주는 이미지

원래의 자신의 입술선을 수정함으로써 분위기 연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같은 색상을 사용하더라도 입술 윤곽이나 입술산의 위치가 중심에서 가깝거나 먼 것 등에 따라 달라진다.

(1) 직선 (straight curve)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선으로 샤프하고 지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50. 직선형 입술선

(2) 인커브 (in curve)

입술의 윤곽보다 안쪽을 향한 커브로 발랄, 경쾌,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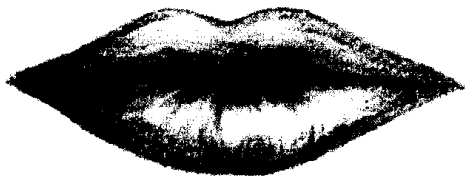


그림 51. 인커브형 입술선

(3) 아웃커브 (out curve)

입술의 윤곽보다 바깥쪽을 향한 커브로 여성적, 클래식한 분위기, 세련미, 섹시한 이미지, 에로틱한 분위기를 준다.

그림 52. 아웃커브형 입술선

2) 입술형태에 따른 화장법

(1) 두꺼운 입술 (thick 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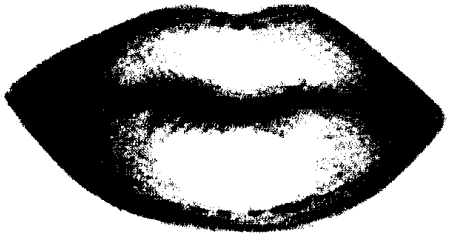


그림 53. 두꺼운 입술

현대적인 느낌이 드나 자칫 투박해 보이기 쉽다. 원래 입술 라인보다 약간 안쪽으로 그려 축소된 느낌을 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따라서 먼저 화운데이션이나 콤팩트를 이용하여 본래의 입술선을 지우고 전체 윤곽에서 1mm정도 안쪽으로 입술산은 완만하게 그려준다. 입술선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입술안쪽을 진하게 바르는 것이 좋다. 립글로스나 펄이 들은 옅은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짙은 계열의 립스틱으로 매트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다.

(2) 얇은 입술 (thin lips)

입술이 작고 얇은 사람은 예민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며 빈약해 보이기 쉽다. 반면에 얼굴의 다른 부분에 비해 입술이 작기 때문에 어려 보이기도 한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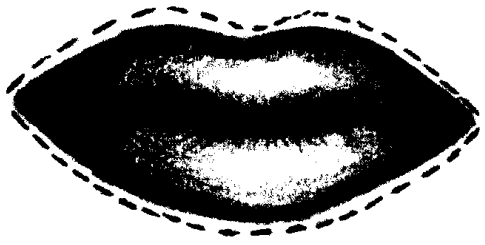


그림 54. 얇은 입술

서 본래의 입술선보다 1mm바깥으로 그리고 라인보다 조금 옅은 색을 발라준다. 가벼운 톤의 색상이나 펄이 든 립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진한색의 립스틱은 입술을 더욱 얇아보이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라인은 부드럽고 둥글게 그려준다. 본래 윤곽보다 약간 밖으로 그리거나 아랫입술을 크게 그린다.

(3) 작은 입술 (small lips)

작은 입술 윤곽을 어두운 색이나 립펜슬로 입술의 두께와 폭을 1mm정도 늘려서 그려준다. 밝고, 따뜻한 색상을 사용하고 립그로스나 립크림을 발라 풍만하게 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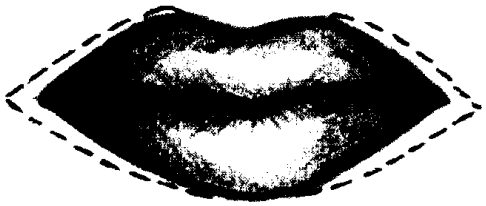


그림 55. 작은 입술

(4) 처진 입술 (droopy 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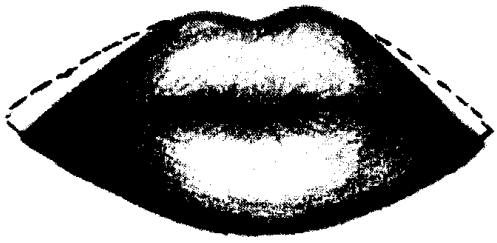


그림 56. 처진 입술

구각이 처진 입술은 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칫 우유부단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활기가 없고 어두운 인상을 주기 쉽다.

입술 양끝을 위로 그려 구각을 끌어 올리면 커버할 수 있다.

립라이너로 입술선을 그릴 때 입술 양끝을 본래 입술 라인보다 1mm정도 위로 그려준다. 이때 윗입술은 안쪽을 향하도록 곡선으로 그려준다. 구각을 너무 올리면 부자연스러우므로 주의한다.

(5) 주름이 많은 입술 (crinkly lips)

주름으로부터 시선을 옮기려면 많은 광택을 주어야 한다. 색만 덧칠할 경우 주름이 더 분명해 보인다. 윤곽을 립 라이너를 이용하여 그리고 안쪽을 립스틱으로 메꾼다. 너무 두껍게 발라 입주름 사이로 번지지 않게 한다. 컬러는 짙은 색보다는 옅은 색을 바르고 매트한 타입보다는 글로시한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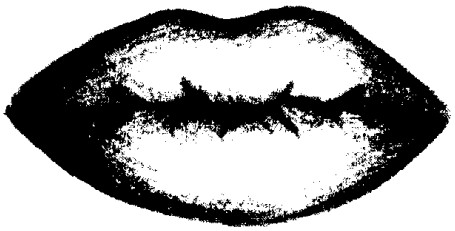


그림 57. 주름이 많은 입술

Ⅵ. 結論

본 논문에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입술 화장문화의 변천과정을 시대적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고, 다양한 입술화장의 종류와 올바른 입술화장법 등을 제시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나 대학생이 되어 가장 먼저 사는 화장품이 립스틱이라고 한다. 메이크업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시기에 빨간 립스틱은 아무래도 유혹의 대상이기에 충분했다. 화장의 처음시작이 입술화장인 것과 나이가 들어서도 최후까지 사용하는 화장품이 립스틱인 것을 고려해 입술화장은 여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성의 92%는 1년에 4개의 립스틱을 구입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간단하게 이미지 변신에도 쉬운 부분이 입술화장이고 많은 여성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템이다.

최근에는 입술화장에 대한 다양한 제품과 여러 화장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보의 부족과 자신에게 적절한 화장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입술화장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며 근대의 입술화장은 10년 단위로 나누어 변천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아울러 입술화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재 사용되는 적절한 입술화장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본 입술화장의 공통적인 목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미적본능에 의한 것이다. 즉 자신의 용모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입술부위에 색조나 선을 사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얼굴 중에서도 입술은 움직임이 가장 많아 눈에 띄기가 쉬우며, 이미지 변화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입

술의 결점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 입술의 색상 및 입술선을 수정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입술을 만들어준다.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면 입술색이 푸른 여자는 음녀라 하여 붉은 입술색을 위해 연지를 사용한 것에 의해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입술의 색상을 수정하는 것은 시대를 통해서 보았을 때 개념은 다르지만 그 기능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입술보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입술화장을 함으로써 외부의 자극, 예를 들면 기온변화에 따른 입술손상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자외선으로부터 입술을 보호할 수 있다. 입술은 피지선이 적으며 땀샘이 없기 때문에 건조하기 쉽고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어진다.

한국의 입술화장의 통시적 고찰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술화장의 시작은 고대문헌과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였으며 이 시기에는 구체적인 입술화장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붉은 연지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후 각 시대별로 미인의 기준이 있어 그에 따른 입술화장의 형태와 색상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여염집 여성들의 엷은 화장과 기생중심의 분대화장으로 보아 화장에 있어서 신분별로 이원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화기 이후 수입의 개방화로 많은 화장품과 화장법이 제시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아주 미미하였는데 낮은 소득 수준과 낮은 기술도 이유이지만 진은 화장은 기생의 상징처럼 여기고 기피해온 우리 사회의 인식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기에는 입술의 색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색의 농도도 진해졌다. 1920년대는 무성영화의 시대로 입술색은 선명하고 진했으며 입술모양은 윗입술은 작게 아랫입술은 약간 도톰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1930년대는 20년대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형태이고 광택있는 입술이 유행하였다. 1940년대는 윗입술을

두개의 대칭되는 곡선으로 둥글고 과장되게 그렸으며 1950년대는 입술을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이며 붉은 색상외에 핑크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60년대는 베이지, 핑크 베이지등 누드계열로 입술을 부각시키지 않았고 1970년대에는 촉촉한 입술표현이 주가 되었으며 윗입술이 대조적인 곡선으로 선명하게 그려졌다. 1980년대는 다양한 색조와 펄의 사용이 많았으며 1990년대는 자신의 입술선보다 과장된 마무리를 하였고 색상도 한층 다양해 졌다. 2000년대는 과장된 입술선보다는 본래의 입술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립라이너의 사용이 자제되고 있었다. 특별한 색상과 입술형태가 중요시되기 보다는 자신의 본래 입술에서 단점은 수정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개개인의개성에 맞게 화장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현재에는 미(美)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화장품의 대량생산과 다양한 수입브랜드의 유입으로 입술화장에 관련된 제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품의 형태도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정확한 정보와 활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앞으로 세분화된 입술화장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자기자신의 개성연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서

강경화 현대메이크업총론 APC 2000

강만길 외 한국사 한길사 1994

고영수 21세기 화장품학 화장품신문사 2002

구본수 Make-up Guide Book(I) 지인당 2001

김광숙외3인 The make up 청구문화사 2002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답게 1997

김효정 메이크업 학연사 1999

김희숙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김희숙 외 뷰티&스페셜메이크업 신정 2002

김명자 화장품의 세계 정음사 1987

김명자 화장품의 세계 정음사 1985

김명자 향장의 상식 전파과학사 1980

김성헌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운명 동학사 1992

김영경 make up in harmony 형설 2001

김춘득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박보영외 makeup art 청구 2002

박정선 아름다움을 살리는 화장품이야기 해일 2001

박보영 외 메이크업 아트 청구문화사 2002

배형자 뷰티메이크업의 기초와 응용 청구문화사 2001

서울 문화사 아름다운 화장 서울 문화사 1993

신단주 메이크업 아카데미 웅진출판 1995

신창식 미인이 되는 법 건강신문사 2001

양두병 미용성형, 어디를 어떻게 명상 1998
엘리자리 gogo메이크업 가서원 1993
이규태 입술의 한국학 기린원 1988
이경복 고려시대 기녀연구 민족문화문고간행사 1986
이능희 태평양50년사 태평양화학 1995
이은임외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이혜성 메이크업 정문각 1996
전선정 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전완길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1999
전완길외 한국생활문화 100년 장원 2000
전용수 make up artist 현문사 2000
정병욱(1966) 時調文學事典 신구문화사 1966
조용진 얼굴,한국인의 낯 사계절 1999
하병조 화장품학 수문사 1999
최영순 가정인상학 명문당 1989

◆ 학위논문

김수진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1997
김용미 해방이후 한국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0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에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8
김태미 한국인의 얼굴이미지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1

송민정 우리나라 전통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1

이화순 한국여성의 Make-up 造形性에 관한 연구-얼굴형에 적합한 化粧色調와 線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3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6

이은임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2000

최영경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논문 1998

◆ 학회지논문

김은주 한국전통 화장품 속사에 관한 연구 복식 1989 13호

노선옥 한국인의 머리형태와 화장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999

◆ 국외서

Bobbi brown Bobbi brown beauty

Cynthia Van Hazinga Make-up magic Golden Apple 1987

Kevyn aucoin Making faces Little, Brown & Company 1997

Meg Cohen Ragas Read My Lips Chronicle books 1998

ABSTRACT

A Diachronic Study on Lip Make-up of Korea

Shin, Sae-young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s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It can be said that the original stream of aesthetic sense of human beings was performed from the time when they started to exist, as we don't know when our language started. It can be said that the formation of the image is made by the flow of society, or the change of emotion, and the cultural course.

Makeup has the aesthetic value to be seen visually, but it considers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value system of the period academically together.

So, it can be considered that it analogizes the mental base and aesthetic sense reflected to it Thus, to see the change course of makeup from cultural viewpoint, it may be the best tool to reflect the phases of the times.

In our country, cheek, lips, and nail should be red which is referred to as three red. So, there was the customs to apply rouge from early on.

It is said that old women who were ruled by the traditional idea that only the women at gay quarters make up and the women of virtue may not make up used lip rouge habitually. It was for the reason that the women whose lip color is blue are lewd women. Originally, rouge is what was applied to cheek or forehead, but it was not what was applied to lips like present lipstick. But, because of the idea that women may not marry, if their lips are pale, the manners and customs that old virgins sought rouge secretly and applied it to their lips came to spread.

Especially, the red of rouge was used widely for the forehead, lips, and cheek of virgins, as minor demons dislike it.

When they start to be conscious of dandyism, cosmetic that they use for the first time is lipstick. Cosmetic that women who used foundation or eyeshadow mainly use to the last with advancing years is lipstick also. Therefore, lipstick may be referred to the representative cosmetic to be used for the first time and to the last in women.

In this thesis, this researcher handled the lip makeup of which the history is longest and which is used widely preponderantly. And, this researcher tries to study the history and change course of lip makeup from ancient times to present and present the proper method of lip makeup.

This researcher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nge of culture of lip makeup, arranged the exact understanding of lip makeup and the diversified lip cosmetic, and presented the right makeup method of lips.

To summarize the findings on the common study of Korean lip makeup is as follows:

The start of lip makeup was made since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judging from ancient literatures and relics. And, we can see that red rouge was used in this period, though we may not know the concrete method of lip make-up. After that, as there was the standard of a beauty by each period, there was the change on the form and color of lip makeup to be based on it. In addition, judging from the thin makeup of middle-class home women and the makeup centering around kisaeng, it could be seen that makeup was dualized by social positions.

Because of the opening tendency of import after the flowering time, many cosmetics and makeup methods were presented. In modern times, the change of diverse colors and lip forms was conspicuous. And, recently, tendency to make-up suitably for the individuality of each individual which corrects the demerits of their own original lips and emboss merits than takes serious view of speical colors and lip forms became thick.

Now, interest about beauty is increasing rapidly, and the products related to lip makeup are appearing in heaps by the mass production of cosmetics and the inflow of diverse import brands. As

the forms are products are diverse and subdivided,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know exact information and application method. In the future, the activation of study on subdivided lip makeup will have to be applied to one's own individuality representation effectively.